LOGISIGHT

WEEKLY INTELLIGENCE

WEEKLY REGIONAL ANALYSIS · MIDDLE EAST

중동 권역 물류 시황 분석

보고기간 08/03~08/09

1. 홍해 위기 대응: 해상 운송 차질과 새로운 해운 서비스 출시

2. 유럽-중동 육상 운송 네트워크 확장

LOGISIGHT 인텔리전스팀

2026-W32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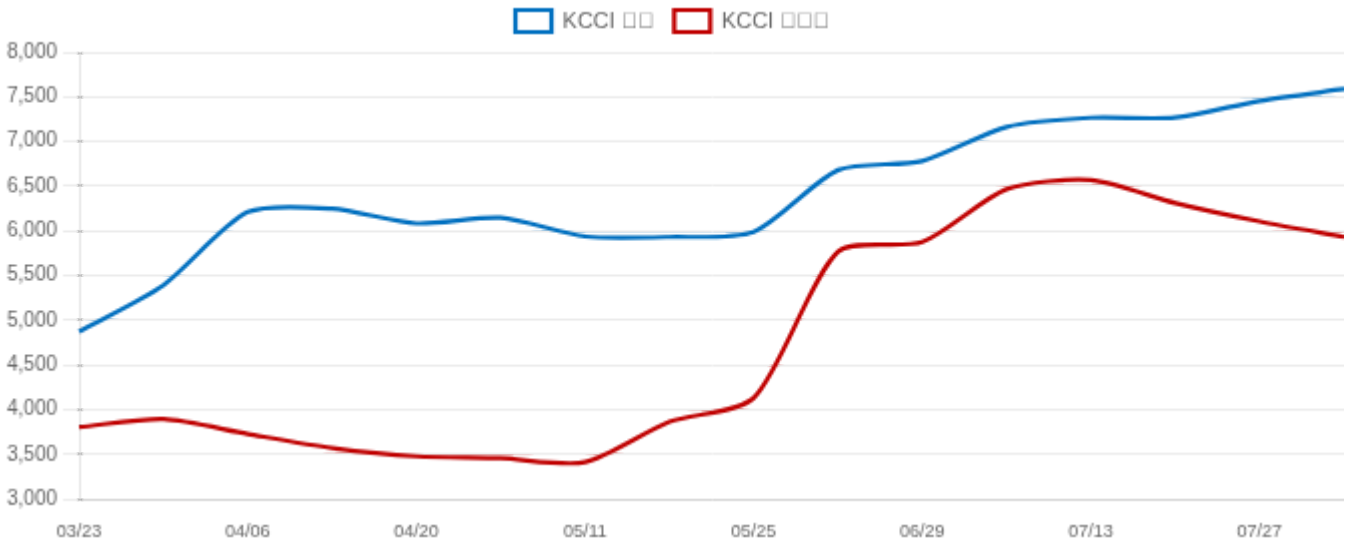
이번 주 중동 권역은 홍해 위기로 인한 해상 운송 차질이 심화되는 가운데, 주요 선사들과 물류 기업들이 대체·보완 항로를 적극 모색하며 새로운 물류 경로가 부상하는 전환적 흐름을 보였다. 해상에서는 위험을 회피하면서도 교역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해운 서비스 출시가 이어졌고, 육상에서는 유럽과 중동을 잇는 장거리 도어투어도어 서비스가 개시되었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노출될 때 해상 중심의 단일 운송 체계가 육상 운송 네트워크로 다변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례다. 특히 이라크를 경유하는 육상 노선의 상업적 운용은 중동 내륙을 관통하는 물류 허브로서의 잠재력을 재조명하게 한다.

향후 홍해 긴장이 지속된다면 해상과 육상을 연계한 신규 복합 운송 모델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며, 이에 따라 물류 비용과 소요 시간의 재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된다. 중동을 경유하는 유럽-아시아 물류 지형에도 구조적 변화가 예상된다.

운임 지표

지수 · 항로	최신값	기준(월/일)	WoW	MoM
KCCI 중동	7,587 $/FEU	08/03	+1.8%	+5.9%
KCCI 지중해	5,933 $/FEU	08/03	-2.9%	-8.3%



자료: freight_indices (KCCI) · 기준 08/03

홍해 위기 대응: 해상 운송 차질과 새로운 해운 서비스 출시

> **홍해 지역 후티 반군의 상선 공격이 지속되며 해상 운송 차질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냐치오 메시나가 인도양-홍해 노선 신규 서비스를 출범시키는 등 주요 선사들이 위험을 회피하면서도 교역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대체·보완 항로를 확대하고 있음.**

2025년 8월 현재 홍해 남부에서 후티 반군의 상선 공격이 지속되고 있음. 인도 국적 화물선 파이즈 누르 올리야(Faize Noore Oliya)호가 호데이다 남쪽 13해리 해상에서 의심 폭탄 보트 공격을 받아 침몰했으며, 바리(Bahri) 소속 유조선 NCC 와파(Wafa)호 역시 탄도 미사일 피격을 주장하는 등 해상 안보 위협이 증대됨. 이로 인해 홍해 항로의 운항 위험 부담이 높아지고 보험료 상승과 선박 운항 일정 차질이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위험 고조에도 불구하고 인도양-홍해 교역로의 물동량 수요는 견조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이냐치오 메시나가 나바 셰바-소하르-제다를 잇는 홍해 익스프레스 라인을 개설하고 20일 간격의 정기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것은 이러한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로 해석됨. 선사는 추가 선박 투입을 통해 선복을 확대하고 기존 졸리 라인과의 보완을 통해 운송 능력과 연결성, 스케줄 유연성을 제고하고자 함.

홍해 위기 지속은 글로벌 해운 공급망에 구조적 변화를 초래하고 있음. 선사들은 수에즈 운하 통과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 희망봉 우회 또는 대체 직항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으나, 이는 운항 거리와 시간 증가로 이어져 운임 상승 압력으로 작용함. 특히 중동-인도-동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지역 항로에서는 소형·중형 선박을 활용한 지역 특화 서비스가 부상하고 있으며, 이냐치오 메시나의 신규 서비스도 이러한 흐름에 부합함.

이번 신규 라인 개설은 특정 화주나 국가를 겨냥하기보다는 인도양-홍해 권역의 광범위한 교역 증가에 대응하는 것으로 평가됨. 이 서비스는 인도 서부,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서부 해안을 직접 연결함으로써 중동-남아시아 간 화물 흐름의 효율성을 높이고, 위험 지역 우회로 인한 장거리 운송 부담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2025년 8월 인도 국적 화물선 파이즈 누르 올리야호가 홍해 남부에서 후티 공격으로 침몰, 전원 구조됨.
- 후티 반군, 바리 소속 유조선 NCC 와파호에 대한 탄도 미사일 공격을 주장하며 상선 공격 지속.
- 이냐치오 메시나, 홍해 익스프레스 라인 출범. 나바 셰바-소하르-제다를 20일 주기로 운항.
- 신규 서비스 첫 출항은 8월 27일 나바 셰바에서 시작되며 버함 박스호가 배선됨.
- 선사는 기존 졸리 라인과 함께 추가 선복을 제공해 운송 능력 및 스케줄 유연성 제고.

전망

홍해 안보 위협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선사들은 리스크 관리와 수요 대응을 위해 인도양-홍해 구간에서 직항·지역 특화 서비스를 더욱 확대할 가능성이 높음. 그러나 지속되는 군사적 긴장은 보험료 인상과 운송 지연을 초래해 해당 항로 운임의 변동성을 키울 것으로 전망됨.

시사점

화주 — 홍해 항로 리스크 지속으로 운임 상승과 일정 변동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대체 항로 또는 재고 선제 확보를 고려해야 함.

포워더 — 기존 수에즈 경유 서비스의 신뢰도가 저하됨에 따라 희망봉 경로 또는 직항 지역 서비스와의 복합 운송 솔루션 개발이 필요함.

선사 — 중동-인도 노선에서 지역 수요에 특화된 소형 선박 기반의 고빈도 서비스를 출시해 위험을 분산하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음.

참고자료: Container News, 이냐치오 메시나, 홍해 익스프레스 라인 출범…20일 간격 운항 · Splash247, Houthi attacks proliferate (검색일: 2026-08-09)

유럽-중동 육상 운송 네트워크 확장

> **유럽-중동 간 육상 운송 네트워크가 해상·항공의 중간 대안으로 부상하며, KLN Logistics Group이 1만 500km 구간의 도어투도어 로드피더 서비스를 개시함.**

KLN Logistics Group이 유럽과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중동 주요국을 잇는 1만500km 육상 운송 서비스를 출시함. 이 서비스는 도어투도어 기준 15~25일의 운송 기간을 제공하며, 해상 대비 빠르고 항공 대비 저렴한 중간적 옵션으로 포지셔닝됨. 단일 계약으로 통관, 허가, 국경 조율, 위험물 운송까지 관리함.

이 같은 서비스 확장은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와 중동 지역의 물류 허브화 추세에서 비롯됨. 해상 운임 변동성과 항공 운송의 높은 비용 부담이 지속되면서, 유럽-중동 교역에서 중간 속도와 비용 효율성을 갖춘 육상 네트워크 수요가 증가함. 특히 걸프협력회의(GCC) 국가들의 인프라 투자와 통관 절차 간소화가 서비스 실현을 뒷받침함.

이번 서비스로 화주는 기존 해상 대비 약 2주, 항공 대비 5~10일가량의 리드타임 차이를 확보하게 됨. 비적재 팔레트 화물과 23톤 이하 위험물까지 취급 가능해, 자동차 부품·전자제품·화학제품 등 고부가가치 화물의 운송 수요를 흡수할 전망임. 로드피더는 항공 편에 의존하던 긴급 화물에도 대안이 됨으로써 물류비 절감과 재고 관리 효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다만 이란을 경유하는 육상 루트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국경 통관 지연 가능성은 변수로 남음. KLN은 통관 대행과 국경 조율 역량을 집중해 리스크를 관리하며, 향후 수요 증가 시 철도·해상 복합운송과의 연계도 고려될 수 있음.

- KLN, 유럽-중동 1만500km 육상 네트워크 출시, 15~25일 도어투도어 제공 (출처: Air Cargo Week).
- 단일 계약으로 통관·허가·국경 조율 포함, 비적재 팔레트·23톤 이하 위험물 운송 가능.
- 해상(30~40일)보다 빠르고 항공(5~10일)보다 저렴한 중간 옵션으로 포지셔닝.
- GCC 국가들의 물류 인프라 확충과 통관 간소화가 서비스 실현의 기반.

전망

유럽-중동 육상 운송 수요는 당분간 증가할 전망이며, KLN의 서비스는 항공·해운 시장의 틈새를 공략할 것으로 보임. 다만 이란 경유 루트의 정치적 불확실성과 국경 정체가 서비스 안정성의 관건이 될 것임. 향후 철도 운송과의 연계가 강화되면 유라시아 복합운송 네트워크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시사점

화주 — 해상·항공 대비 리드타임과 비용을 조율할 수 있는 제3의 선택지가 추가됨으로써 공급망 유연성이 제고됨.

포워더 — 로드피더 서비스를 활용해 항공·해상 포워딩 외에 육상 복합 운송 포트폴리오를 확장할 기회가 생김.

참고자료: Air Cargo Week, KLN launches new Europe–Middle East road feeder service (검색일: 2026-08-09)